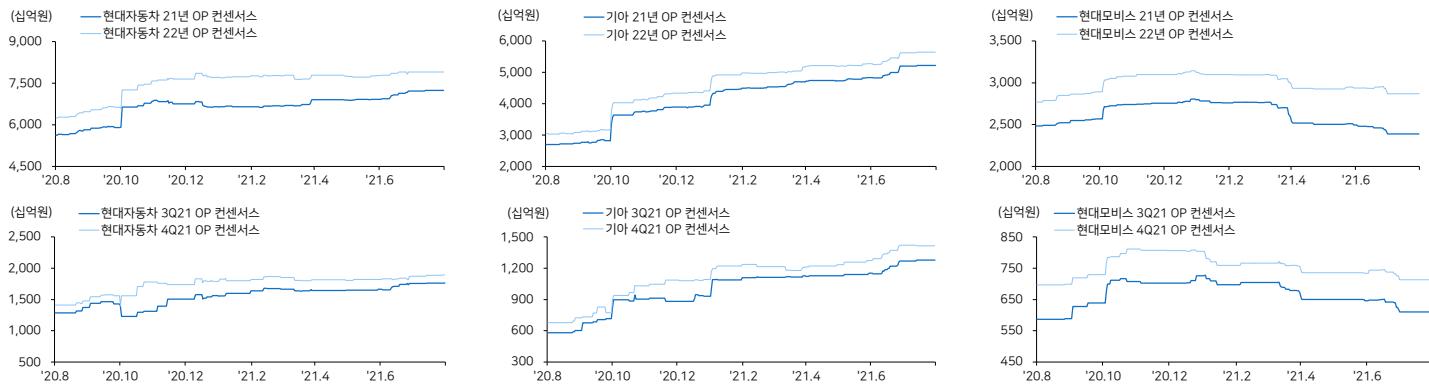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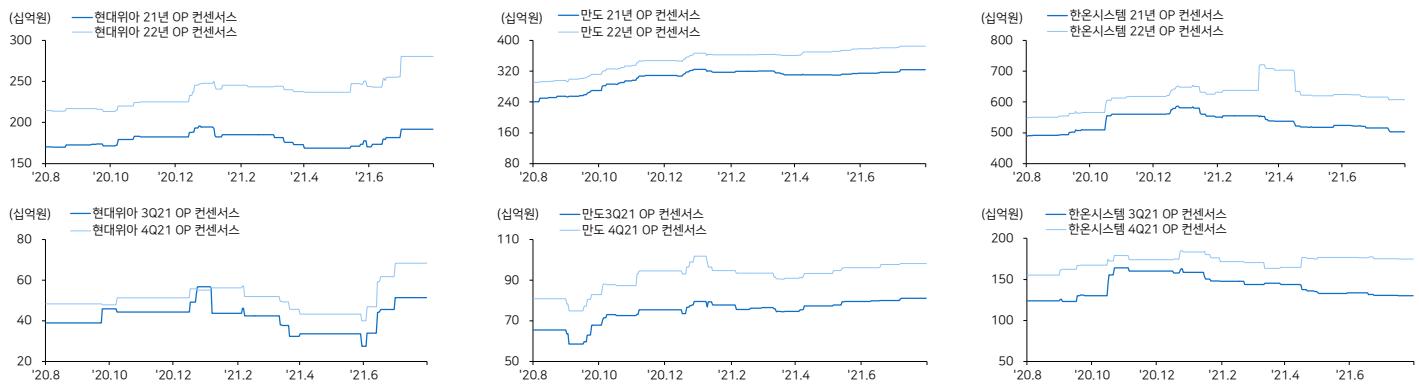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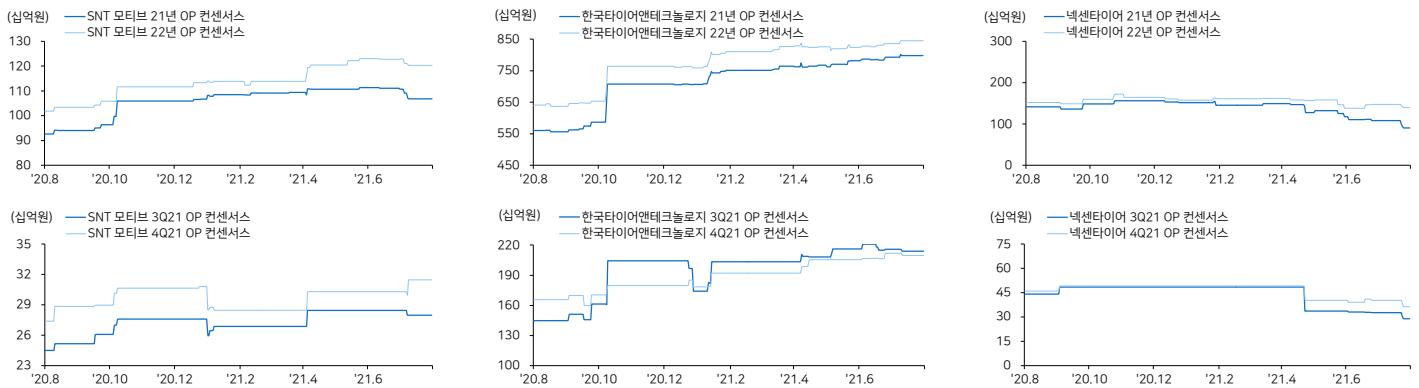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0.7%의 반감...현대차·기아, 인도네시아 정조준 (한국경제)

현대차는 올해 말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에 연 1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에 들어갈 전망. 또 LG에너지솔루션과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협작 공장을 짓고, 2024년 상반기부터 연 15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다.
<https://bit.ly/2WADGCO>

현대차그룹 3총기' 특히 5만건 육박... 미래 모빌리티 속도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 인도네시아 브카시시에 연 1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에 들어갈 전망. 또 LG에너지솔루션과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협작 공장을 짓고, 2024년 상반기부터 연 15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다.
<https://bit.ly/2Yb8FYh>

현대위아, 러시아공장 막바지 투자...캡티브 물량 우선 (the bell)

현대위아가 8월 원공을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러시아 엔진 생산공장에 막바지 자금을 투입함. 러시아 생산공장은 가동 직후 전량 현대차 러시아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처 확대 계획.
<https://bit.ly/3sZ58S>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폭스바겐, 2030년 수동변속기 투입 전면 중단 (오토퍰일리)

폭스바겐은 오는 2023년에 출시될 3세대 신형 티구안부터 수동변속기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 예정.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이르면 2030년부터 미국, 중국, 유럽에서 수동변속기 모델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https://bit.ly/2WEsuGP>

현대차 경형 SUV 'AX1' 출시 임박...경차 시장 부활 신호 될까 (이데일리)

현대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AX1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할 계획. 자사의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며, 이는 경차의 경쟁요소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촉진비를 줄이기의 일환으로 풀이됨.
<https://bit.ly/3ytsHti>

제네시스, '2022 GV80' 출시...6인승 모델 추가 (THE GURU)

제네시스는 30일 신형 GV80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힘. 6인승 모델을 추가하고 고급 편의 및 안전사양과 내·외장 컬러를 더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
<https://bit.ly/3glDZhN>

7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14% 증가... 자동차가 최대 호자 (중소기업뉴스)

지난달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자동차 수출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는 전환경자와 SUV 수출 호조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 회복의 영향으로 28.4% 증가한 686만t으로 집계됨.
<https://bit.ly/3sZ5dSi>

소니·TSMC 반도체 동맹군에 '토요타 엔소' 합류 (THE GURU)

소니와 TSMC의 반도체 동맹에 토요타 계열사인 차량부품 회사 엔소도 합류. 부품업체는 대규모 공급처를 확보하고 완성차 기업은 안정적인 칩 공급망을 확보, 원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
<https://bit.ly/2WxVek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